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야고보서

하늘에 속한 지혜 (약 3:13-18)

야고보 사도는 그의 하나님에 없는 짧은 서신서에서 지혜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생동하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듯이, 지혜에도 하늘에 속한 진짜 지혜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속한 가짜 지혜가 있습니다.

1. 이 세상에 속한 가짜 지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약 3:14).

마음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성경적인 지혜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꾀가 잘 돌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며 독한 시기와 다툼, 그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지혜는 귀신의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15절). 이런 지혜는 일시적으로 세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공동체를 맹들게 하며 결국 자기도 그 꾀에 죽게 됩니다.

2. 하늘에 속한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약 3:17).

야고보 사도는 하늘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성결 ②화평 ③관용 ④양순 ⑤긍휼 ⑥선한 열매 ⑦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한다

사탄은 모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면 사탄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 1:10).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죄까지 범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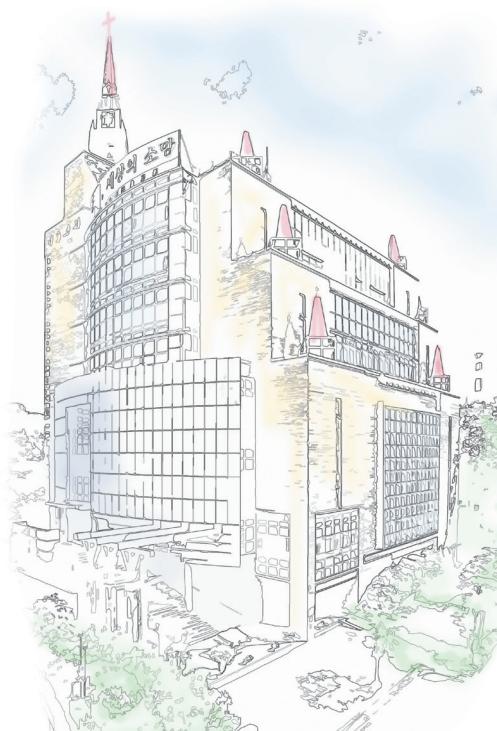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늘의 속한 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충만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4).

하늘에 속한 지혜에 관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Wisdom belonging to heaven (James 3:13-18)

James the Apostle, in his short letter which is only one, repeatedl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wisdom. The Bible teaches u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The beginning of knowledge indicates the fear of the Lord, and the fear of the Lord indicates living our life before God. Nevertheless, just as there is life and death in the faith, so there is real wisdom and false wisdom in the world.

1. The false wisdom belonging to the world

"But if you harbor bitter envy and selfish ambition in your hearts, do not boast about it or deny the truth" (James 3:14).

People who have jealous and argumentative thoughts don't display biblical wisdom. It is said that a person is wise when

their worldly trick goes well, but this kind of wisdom doesn't belong to heaven. James the Apostle says that wisdom does not come down from the above but it is on the earth, unspiritual, and demonic. And he also says directly that the wisdom that is changed into the untruth is demonic (v.15). Such wisdom is that we may temporarily gain the worldly benefit but in the end it covers God's glory and makes a community to be bruised, and finally they will die by the trick.

2. The wisdom belonging to heaven

"But 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is all pure; then peace-loving, considerate, submissive, full of mercy, and good fruit, impartial and sincere" (James 3:17):

James the Apostle explains the wisdom from heaven in seven ways.

1) Pure 2) peace 3) considerate 4) submissive 5) mercy 6) good fruit 7) impartial and sincere.

The Satan is the dad of all lies. Therefore, if we tell a lie, we will become Satan's children.

"If we claim we have not sinned, we make him out to be a liar and his word is not in us" (1 John 1:10). One of the greatest sins is that someone who says "I have not sinned." Like this anyone who says God is a liar commits a crime.

My beloved Christians,

We must be full of the wisdom belonging to heaven, the wisdom coming down from heaven, and the grace that is given by Jesus Christ. The man who is full of wisdom from heaven plants peace and bears fruit of righteousness.

"But those whom God has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1 Cor 1:24).

All about the wisdom belonging to heaven is in the cross of Jesus Christ. Therefore, all of us must go to the way of the cross.

By planting peace and bearing fruit of righteousness,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the people of wisdom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2016년 표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 행동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님되는 교회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2016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7월 21일(목) : 에바다부 / 7월 22일(금) : 교육 1국

부 서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유아부	7/22(금) - 23(토)	서울교회	믿음에 굳게 서요	박노철 목사 구본해 전도사
유치부			예수님이 쏘옥~ 알콩달콩 사이좋게!	박노철 목사 양세라 목사
유년부			믿음에 굳게 서요	박노철 목사 고수은 전도사
초등부	아가페타운		믿음에 굳게 서요	심진희 목사
중등부			하나님의 그루터기 (사 6:13)	박노철 목사 이진광 전도사
고등부			내일을 향한 지혜 (잠 16:9)	박노철 목사 천세종 목사
청년1·2부			청년 예수님이 마음으로 II (빌 25)	박노철 목사 박병만 목사 (높은뜻정의교회 청년부총괄) 서준권 목사 장재원 목사 정대은 목사
에바다부			그리스도와 연합 (시 133:1)	임규현 목사
영어예배부	8/4(목) - 6(토)	아가페타운	Living a Genuine Christian Life	박노철 목사 김삼열 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김다니엘 목사

2016 방글라데시 비전트립 취소

당회는 최근 발생한 방글라데시 다카지역에서 발생한 IS의 테러로 인한 치안 불안 등의 문제로 2016 방글라데시 비전트립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현지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테러범과 단체를 색출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약 12,000여명을 검거하였고

외국인 출입국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소가 불가피하였다. 이에 2016 방글라데시 비전트립 팀(팀장 : 정치은 집사)은 지난 7월 9일(토) 해단식을 가졌다. 방글라데시 그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 지길 기도 부탁 드린다.



북핵폐기 천만인 서명운동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

북핵폐기운동본부단(상임대표 이종윤 목사)이 6일간의 미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현지 시간 7월 11일(월) 오후 한국대사관의 대표단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링컨기념관 방문, 한국전쟁기념비 방문, 백악관 라파엣공원(La Fayette Park) 통일기도회 참가, Hudson Institute 좌담회, 전 주한미대사, 6자 회담 미대표 Sung Kim 대사 좌담회와 북한인권대사 면담, 상하원외교분과위원장 면담, 워싱턴 통곡기도대회,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 및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창립대회 등의 위성吨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건너와 유엔대표부 방문, 유엔사무총장면담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 및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창립대회 등의 빠빠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종윤 목사님은 북핵폐기 천만인 서명운동 위성단 지부 출범시 인사말을 통해 “이재필선생과 이승만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풍전등화의 국운을 위해서 기도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이 있다. 현재 모국은 사드와 핵폭탄으로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실을 직시하여 워싱턴에 사는 모든 동포들도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하였다.

한국일보 한인신문은 7월 13일자에 북핵폐기운동본부단의 미국 방문을 보도하면서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북핵폐기 천만인서



왼쪽부터 차용호 목사,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이종윤 상임대표, 서경석 공동대표. (사진출처 : 미주한국일보)

명운동본부의 일원으로 함께 간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은 12일 본보를 방문 사드로 북한 해 공격을 막을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나마 최상의 성능을 갖춘 무기 체계라고 말했다“고 했다.

중앙일보 워싱턴 신문은 “이종윤 대표와 김진영 대한민국 성우회장, 서경석 목사는 워싱턴 지역 방문을 통해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및 한미 공조가 강화되고, 동포사회 참여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5억 달러면 북한 동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줄 식량을 살 수 있는데, 북한 정권은 10억 달러 넘는 핵개발에 집착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북한인권과 핵 문제를 이슈화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규제를 지속해서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이종윤 원로목사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혁신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



장년부 2학기 개강 오늘 오전 10시 / 본당

장년부(부장 : 노제현 집사)는 7월 17일(주) 2학기를 개강한다. 강사는 김철홍 목사(교수)로 주제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신양강좌부 2학기 개강

오늘 오후 12시 40분 / 601호

신양강좌부(부장 : 송용훈 집사)는 7월 17일(주) 2학기를 개강하며 오후 12시40분, 601호에서 모인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포항 해병대 교육단 진중세례식 7월 23일(토)

해병대 신병들에 대한 진중세례식 및 성찬식이 비전2020운동본부(본부장 최광성 장로) 주관으로 7월 23일(토) 오후 2시에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교회에서 거행되며, 박노철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당일 오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만으로는 안 되고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2014년 5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북핵폐기는 지금까지 250만 명 넘는 사람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종윤 원로목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북핵폐기운동 못지않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운동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엄청난 격차가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빈부의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좌와 우의 지식인들이 진영논리를 넘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타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방문단은 사드는 한국이 거액을 주고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주한 미군의 무기 중 하나로 배치되는 것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선물과도 같은 것인데 이를 놓고 일각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한국의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정책에 대해서도 격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정책은 막연한 공약으로 다뤄서는 안 될 것이며 전술 핵무기 재배치 등 핵우산 정책을 구체화하고 미국의 일방적 핵우산 정책을 양국 간 조약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북핵폐기 운동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과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며 이 일에 누구보다 기독교인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하계 국내전도

복음의 빛으로 일어나라!



홍창훈 집사
(하계국내전도단
서기)

2015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서명철 목사님의 지도와 이번 전도시역의 단장을 맡으신 최광성 장로님, 세 분의 임원들과 함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에 있는 대진중앙교회에서 전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10일 주일 당일 의료봉사를 위한 의료선교팀을 선두로 11일 월요일 교회학교팀, 축호 전도팀, 이미용봉사팀, 시설지원팀, 식

당봉사팀등 총6개팀 79명의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도착 후 각자 맡은 전도사역을 충실히 이행 했습니다. 특히 의료선교팀은 마치 종합병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내과, 정형외과, 안과, 한방과, CT촬영, 약방 등 여러 부문에 걸쳐 60명의 어르신들 진료를 실시했으며 의사, 약사 선생님들의 손길 하나하나의 진료봉사를 통해 대진리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도되어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약속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미용팀에서는 98명의 동네 어르신들의 파마머리와 피부미용에 정성을 다해 아름답게 꾸며주셨고 미용하는 시간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슬라이드쇼를 통한 3일 동안의 전도는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켜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을 새롭게 영접하기로 약속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믿음이 정착되지 못해 방황하는 대진리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 배경애 전도사님의 진두지휘로 축호전도팀, 교회학교팀의 청년부와 이삭선교회의 3개팀이 전도사역의 사명감을 갖고 대진항과 주변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무덥고 바람불고 비오는 날에도 짧지만 3일간의 힘겨운 전도여정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도를 나온 서울교회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을 보니 벌써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진리가 멀지 않

은 장래에 주님의 축복받는 동네가 되리라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2일째 되는 12일 군선교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비전2020부서에서 대진리 인근 22사단내에 2개 중대를 양육지원 부대로 지정 방문하여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전도사역 3일동안 오후에는 교회학교팀의 청년부에서 동네의 초중등의 어린학생들과 운동과 레크리에이션으로 학생들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여주는 전도사역을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전도의 결실을 맺는 수요일 저녁 3일째 되는 날 결신자 110명의 성과를 올렸으며 그날 오후 7시 대진중앙교회는 하나님을 영접하기로 약속한 많은 주민들을 위한 특별예배와 다음세대 여름성경학교에 전도된 어린학생 15명의 특별찬양이 있었고 이분들을 위한 저녁만찬 준비에 정성을 다했으며 예년에 비해 30% 늘어난 49명의 새로운 영혼들을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전도사역 내내 모든 성도들을 위해 때마다 맛있는 식사로 식당봉사를 해주신 많은 권사님들의 노고가 있으셨고 권사님의 수고하심으로 3박4일 일정동안 힘내서 하계전도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도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심어주고 주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인 것을, 그리고 이러한 사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본예 전도사
(유아부 지도)

2016년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교가 “믿음에 굳게 서요!”(고 전16:13)라는 주제로 7월 22(금)-23일(토)에 706호에서 열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바람에도 나부끼는 가랑잎처럼 작은 어려움에도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의 벽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우리의 다

음세대인 유아부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자라가도록,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학습과 놀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며 훈련하고자 합니다.

거세게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유아부에서는 한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부 자녀를 두신 가정에서는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6 여름성경학교 초대 - 유치부

화목하게 하는 어린이

양세라 목사
(유치부 지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예수님이 쏘옥~ 알콩달콩~ 사이좋게!!"로 정하고, 1.예수님이 쏘옥~ 하나님과 사이좋게 2.알콩달콩 친구와 사이좋게 3.온 세상이 사이

유치부는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에 맞추어, 하나님과 화해, 이웃과 화해, 자연, 사회 안에서의 화해를 다루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초점을 두고,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될

좋게"라는 세 가지 테마 말씀과 연계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사랑을 전하며, 화목하게 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딙는 특별한 시간에 꼭 오세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친구들도 함께 보내 주세요. 맛있는 간식과 게임을 즐기다 보면 교회에 처음 오는 친구들도 어느새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될 것입니다. 7월 22일 오전 9시 유치부 문을 활짝 열고 친구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2016 여름성경학교 초대 - 유년부

믿음에 굳게 서요!

고수은 전도사
(유년부 지도)

무거운 현실의 벽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자녀들에게 이번 여름, 반드시 전해주어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의 확고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셋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기억하므로 믿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11:1).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흡족하게 하는 능력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다음세대들에게 전수해야 할 미션은 진리 위에 굳게 선 믿음을 갖도록 돋는 일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요!"라는 주제로 함께 할 유년부 여름성경학교(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 ~ 토요일 오후 4시)에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6 여름성경학교 초대 - 초등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심진희 목사
(초등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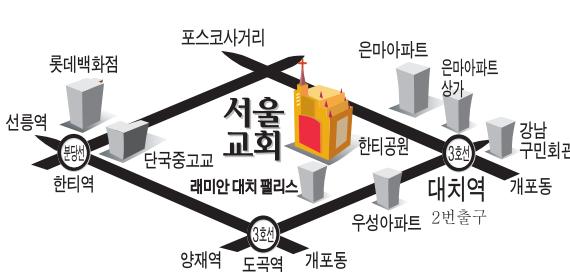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크게 느껴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르치려 합니다. 거세게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 계획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짐을 가르칠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보다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세우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초등부에서는 성경공부, 공동체체임, 활동센터, 천국 기도회, 굳센 믿음 컨테스트, 물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2016년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에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을 초대합니다!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曜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세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층
금요 기도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금주에 계속되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우리교회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예바다부 여름수련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 7월23일 실시되는 해병대 전중세례식을 통해 민족복음화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북핵이 폐기되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정착되고 복음화된 통일 조국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